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763>

JCCT 2024-5-85

## 디지털콘텐츠 전공 대학생의 취업에 관한 주관성의 유형별 특성 분석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by Type of Subjectivity Regarding Employment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igital Content

이석창\*

Sukchang Lee\*

**요약** 본 연구는 실기 교육에 중점을 두는 디지털콘텐츠 전공 대학생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여 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임의로 선정한 31명의 P 표본으로부터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Q 표본을 활용하여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실무경험 부족', '취업 및 실무역량 부족', '진로 결정장애 및 의지박약', '멘토 및 취업정보 부족' 등 총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며, 진로 탐색 워크숍을 운영하고, 선배 멘토링을 확대하는 등의 시사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디지털콘텐츠, Q방법론, 주관성, 유형화, 취업, 취업스트레스, 취업불안

**Abstract** This study utilized Q methodology to analyze subjectivity and understand the variou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employment difficulties faced by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igital content, particularly focusing on practical education. The original data was obtained by administering a Q sample, designed around employment stress and job anxiety, to a purposively selected P sample of 31 individuals, who sorted and classified the statements. The analysis yielded four distinct types: 'lack of practical experience,' 'lack of employment and practical skills,' 'impaired career decision-making and weak will,' and 'lack of mentors and employment information.' Based on these types, the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and solutions, including facilitating student participation in internship programs, offering induction and non-curricular program education, conducting career exploration workshops, and expanding senior mentoring opportunities.

**Key words** : Digital Content, Q-Methodology, Subjectivity, Typification, Employment, Employment Stress, Employment Anxiety

#### 1. 서론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에 따라 국내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글로벌 교역량 감소, 미 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이슈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존하여 산업 전반적으로 저성장 추세 전망이 예측됐다[1]. 콘텐츠 산업 분야는 수출액 증가에 따라 전체 매출액은 증대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줄어들었다. 2023년

\*정희원,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4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4, 2024 / Revised: April 10,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2stonespear@gmail.com

Dept. of Digital Contents, Konyang Univ, Korea

상반기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하였다[2]. 경직된 취업 시장은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을 야기한다. 취업난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상당수의 대학생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스트레스와 취업에 실패한 후에 겪게 될 심리적 압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업불안을 겪고 있다[3].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콘텐츠 전공 대학생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해당 전공 4학년 학생들과 취업상담을 진행한 결과, 그들은 역량 부족이나 실무경험 부족으로 취업 실패를 걱정하며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의 모습을 보였다.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이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그간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사회적 지지, 우울, 자기 통제력이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취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4], 사상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 비싼 등록금과 물가상승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나타냈다[5]. 이외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불안을 환경적·개인적 배경 인식 측면과 심리상태, 부모기대, 고용 안정성, 업무역량 판단불안, 취업스펙 및 역량 부족 측면에서 논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디지털콘텐츠 전공 대학생의 취업에 관한 주관성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 학생들이 경기 침체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취업불안 요소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성 연구 기법인 Q방법론을 사용하여 취업에 대한 해당 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였다.

콘텐츠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역량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다. 디지털콘텐츠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에 관한 주관성의 유형별 특성을 다룬 연구는 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다각도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 디지털콘텐츠 전공은 실기 교육을 수반하고 있어 해당 전공 학생들이 취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유형에 따른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학 교육에 중요한 문제다.

## II.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

### 1.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취업 문제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잃고 위기감, 긴장,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지칭한다[6]. 이는 대다수의 대학생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켜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7]. 취업스트레스는 적응과 의욕저하, 능력 발휘의 어려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우울과 자살 생각에까지 이르게 하는 변인이다[8].

우울증은 슬픔, 고독, 무관심 같은 구체적인 기분 변화로 정의되며,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수의 심리학 이론에서 지적되고 있다[9]. 특히,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대인 관계적, 학업적 스트레스를 겪고 이러한 요인들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취업불안

불안은 긴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연속 반응과 관계있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긴장감과 걱정, 자율신경 활동의 증가라는 특성을 보인 정서 상태나 조건이다[10]. 대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취업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취업 실패 시 겪을 심리적 부담에 대한 걱정 및 두려움은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취업불안을 유발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11].

대학생들이 불행을 느끼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취업에 대한 걱정이 꼽혔으며, 이러한 취업불안은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방해하고, 대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12]. 취업불안은 진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취업을 준비하지만, 사회적인 취업 환경이 좋지 않아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불안을 높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불안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진로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와 절차

이 연구는 취업을 앞둔 디지털콘텐츠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에 관한 주관성을 Q방법론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방식은 일련의 측정된 변인 사이의 관련성 패턴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 방식으로 분류에 주관성을 포함하는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결합한다[14]. 개인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교육, 심리, 마케팅,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당 전공 학생들 일부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들이 역량 및 실무경험 부족으로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불안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후 총 46문항의 Q 표본을 정한 후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P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획득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 표 1과 같다. 1단계에서 Q 표본을 선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전공 학생들을 임의표집하여 총 31명의 P 표본을 선정하였다. 3단계는 취업불안에 관한 진술문에 동의 및 비동의 정도를 선택 후 Q 표본을 Q 분류판에 분류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획득된 자료를 PQMethod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는 단계이다.

표 1. 연구 절차

Table 1. Research Procedure

단계	내용
1단계	Q 표본 선정
2단계	P 표본 선정
3단계	Q 표본 분류
4단계	자료 획득 및 분석

#### 2. Q 표본 설정

Q 표본을 구성하는 것은 참여자가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까지 일련의 진술문을 분류하면서 이루어진다. Q 표본 설계의 주요 목적은 연구 문제를 잘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항목들을 생성하는 것에 있다[15].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주제 연관성이 긴밀한 김민정 외(2023)가 개발한 진술문을 활용하였다. 척도구성에 중요한 것은 문항의 대표성이며, 30~50개의 진술물이 Q 표본으로 적절한 배경에서 위 진술문은 적정성에 어려움이 없다고 볼 것이다[16].

#### 3. P 표본 구성

기초 데이터 수집은 2023학년도 2학기에 충청남도 논산 소재 K대학교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실기 교육을 중점으로 듣는 학생을 임의표집하여 31명을 P 표본으로 선정했다. 연구대상자는 취업을 앞둔 3, 4학년 학생으로 하였다. 각각 3학년 14명과 4학년 17명이었다. 이 중 남학생은 10명이고, 여학생은 21명이었다. 연령은 20~22세 17명, 23~25세 13명, 26세 이상 1명으로 20~22세 그룹에 속하는 학생의 수가 가장 많았다.

표 2. P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 Sample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	4학년	17	54.84
	3학년	14	45.16
성별	남자	10	32.26
	여자	21	67.74
연령	20~22세	17	54.84
	23~25세	13	41.94
	26세 이상	1	3.23

#### 4. Q 분류

Q 분류에 따라 P 표본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P 표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참여자의 주관성을 유형화한다. 모든 참가자는 진술문을 Q 분류표에 배치하는데, 해당 진술문을 동의, 중립, 비동의 등 총 3가지 범주에서 진술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Q 분류표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 Q 분류표에서 -5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5의 '매우 동의함'까지 11단계로 진술문을 배치한다. 유사정규분포에 따라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 6개, 5개, 4개, 3개, 2개로 진술문을 배치하도록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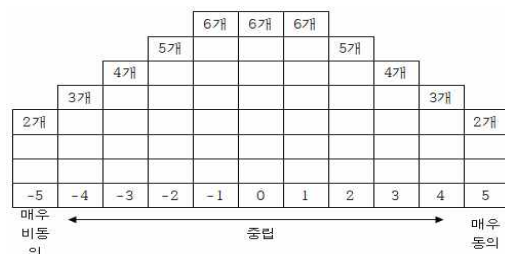


그림 1. Q 분류표

Figure 1. Q Classification Table

#### 5. 데이터 분석

Q 분류를 마친 데이터는 PQMethod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윈도용 PQMethod 2.35 버전 프로그램과 요인 회전시킬 목적의 PQMethod 연동 애드온 프로그램 PQROT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 표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센트로이드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론적 맥락에 따라 회전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였으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요인들을 회전시켰다. 수동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유형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1.0 이상의 아이겐값을 기반으로 하였다. 유의미한 해석을 위해서는 아이겐값이 1.0을 초과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17].

#### IV. 연구결과

##### 1. 유형화

참가자 31명의 Q 분류 자료 분석으로부터 총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별 요인 고유향 및 변량 수치는 다음 표 3과 같다. 유형 1은 30.0%, 유형 2는 17.0%, 유형 3은 7.0%, 마지막으로 유형 4는 7.0%이며, 전체 누적변량은 61.0%로 나타났다. 유형의 상관계수는 유형 간의 유사도를 드러내 요인의 특징을 도출한다. 유형 간 상관관계 분석에 따라 계수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유형 1과 유형 4의 상관계수가 0.5490으로 가장 높았고, 유형 2와 유형 3이 0.2899로 그다음이었으며, 유형 1과 유형 2의 상관계수가 0.2448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에 유형 3과 유형 4의 상관계수는 -0.14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유형별 요인 고유향 및 변량 수치

Table 3. Factor Eigenvalues and Variance Values by Type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Eigenvalues	9.3677	5.1336	2.3112	2.1050
Variance	30.0%	17.0%	7.0%	7.0%

표 4.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결과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Between Types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1	1.0000	0.2448	0.1018	0.5490
유형 2	0.2448	1.0000	0.2899	0.1827
유형 3	0.1018	0.2899	1.0000	-0.1448
유형 4	0.5490	0.1827	-0.1448	1.0000

##### 2. 유형별 특성

###### 1) 제1유형: 실무경험 부족

제1유형은 ‘실무경험 부족’이다. 이 유형에서 드러난 해당 학생들의 특징은 실무경험이나 직무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3번 문항의 실무경험 또는 직무 경험의 부재에서 표준점수 2.032로 가장 크게 동의하였으며, 23번 문항의 학교 및 학과의 취업 자원 미제공에 가장 동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진술문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제1유형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Table 5. Type 1 Statements and Standard Scores

문항	진술문	표준점수
3	실무경험이나 직무관련 경험이 없어 취업이 안 될 것 같다	2.032
27	아는 사람이 취업을 해서 잘 되는 경우를 볼 때 부럽다	1.118
11	적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하다	-1.112
17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	-1.362
21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1.518
23	교수님과 상담, 경험, 정보, 인맥 등 취업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없어서 걱정된다	-1.579

###### 2) 제2유형: 취업 및 실무역량 부족

제2유형은 ‘취업 및 실무역량 부족’이다. 해당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기술, 면접 등 역량에 부족함을 느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코로나 시국에 따라 실무경험 부족으로 취업스트레스 및 취업불안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한 것과는 달리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가 불리한 취업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유형에서는 해당 학생들은 입사 능력 뿐 아니라 부족한 외국어, 자격증과 부족한 이론 및 실기능력을 불안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표 6. 유형별 요인 고유향 및 변량 수치

Table 6. Type 2 Statements and Standard Scores

문항	진술문	표준점수
4	입사 관련 능력(지원서기술, 면접 등)에 대한 자신이 없어 불안하다	2.110
1	부족한 스펙(외국어, 자격증, 컴퓨터 등) 때문에 취업 걱정이 된다	1.888
2	부족한 이론 및 실기능력 때문에 취업에 대한 불안이 있다	1.509
6	남들에 비해 뚜렷하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불안하다	1.328
41	코로나로 인해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줄어들어 불안하다	-1.357
43	코로나로 인해 일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든다	-1.411
42	코로나로 인해 전공 분야의 일자리 감소로 불안하다	-1.560

###### 3) 제3유형: 진로 결정장애 및 의지박약

제3유형은 ‘진로 결정장애 및 의지박약’이다.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요인으로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이다. 제3유형은 제2유형 중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과 연결되어 있다. 다음 표 7에서 나타나듯이 6번 문항 해당 학생의 자신감 결여가 결정장애 및 의지박약과 함께 진술문에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유형별 요인 고유폭 및 변량 수치  
 Table 7. Type 3 Statements and Standard Scores

문항	진술문	표준점수
12	결정의 어려움으로 취업 기회마저 상실할 것 같아 불안하다	1.881
13	취업을 못하는 공백기가 길어져서 불안감이 높아진다	1.881
6	남들에 비해 뚜렷하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불안하다	1.609
5	취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자괴감이 든다	1.583
24	졸업한 선배들이 취업을 못하고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남 일 같지가 않다	-1.225
25	언론 매체나 사람들(교수, 선배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들을 때 불안하다	-1.225
33	경기체제로 인한 취업난이 심각해서 걱정이 된다	-1.364

4) 제4유형: 멘토 및 취업정보 부족

제4유형은 ‘멘토 및 취업정보 부족’이다. 학생들은 멘토의 부재 및 취업 정보 자원을 얻지 못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번 문항 학과 선배들의 취업걱정이 남 일 같지가 않다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반면, 10번 문항 외모에 자신이 없어 의기소침하다에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였다. 학생들이 10번 문항에 가장 비동의를 하는 것은 실기 중심인 디지털콘텐츠 전공에서의 업무 행태가 팀 프로젝트나 개인별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배경과 연관있다. 해당 업종에서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어서 외모보다는 개인의 역량이나 실무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표 8. 유형별 요인 고유폭 및 변량 수치  
 Table 8. Type 4 Statements and Standard Scores

문항	진술문	표준점수
28	학과 선배들의 취업걱정이 남 일 같지가 않다	1.494
24	졸업한 선배들이 취업을 못하고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남 일 같지가 않다	1.463
25	언론 매체나 사람들(교수, 선배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들을 때 불안하다	1.406
23	교수님과 상담, 경험, 정보, 인맥 등 취업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없어서 걱정된다	1.100
20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예민해진다	-1.276
21	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1.431
10	외모에 자신이 없어 의기소침하다	-1.612

V. 결 론

대학은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 기회의 감소로 해당 분야의 대학생들은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전공 대학생이 가지는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실무경험 부족’, ‘취업 및 실무역량 부족’, ‘진로 결정장애 및 의지박약’, ‘멘토 및 취업정보 부족’ 등 총 4개 유형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류된 유형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4개 유형 중 제1유형은 실무경험 부족이다. 실무경험은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수적이며,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신감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젝트, 산업계 현장학기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업무를 경험하고, 직무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해당 대학은 유관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제2유형은 취업 및 실무역량 부족이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취업 및 실용 기술 부족은 학생들의 취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 교육 과정은 산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학생이 다양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은 관련 부서의 지원을 통해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수행 등의 취업역량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 정규 교육 이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편, 제2유형에서 드러난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이 인식하기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이 성장 중인 데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일상으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3유형은 진로 결정장애 및 의지박약이다.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감 저하를 경험한다. 대학은 경력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탐색

워크숍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의사 결정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진로 탐색 워크숍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찾고, 적합한 진로를 찾게 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제4유형은 멘토 및 취업정보 부족이다. 적절한 멘토링과 취업 정보의 부재는 학생들이 시장의 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미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근황을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이를 취업을 앞둔 학과 학생에게 공유하는 한편 선배 멘토링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시장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취업지원센터 같은 학교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준비생에게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디지털콘텐츠 전공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을 해소하고, 그들이 취업 성공에 경차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학생들은 대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취업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KDB 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 "2023 Industrial Outlook," p. 63, 2022.
- [2]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Content Industry Trend Analysis for the First Half of 2023," 2024, p. xiii.
- [3] YJ So & JS Park,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 6, No. 4, p. 24, 2016.
- [4] HJ Park, EJ Yoo & HM Lee,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depression, self-control on job stress in job seekers", *JCCT*, Vol. 9, No. 5, 2023. <https://doi.org/10.17703/JCCT.2023.9.5.125>
- [5] SA Kang, "The Impact of Employment Stress and Perfectionism in College Students on Depress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5.
- [6] MJ Kim, HJ Cha, & YJ Ahn,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Anxiety in the Post COVID-19 Era",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 Vol. 13, No. 1, 2023. <https://doi.org/10.22143/HSS21.14.2.24>
- [7] SH Hwang & JK Park, "The Stress-Buffering Effect of Natural Environment on the Job-Seeking of the Students: Focused on Savanna Theory", *KASTM*, Vol. 24, No. 3, 2009. UCI: I410-ECN-0102-2012-180-000242046
- [8] CR Ju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Stress", *JHRMR*, Vol. 20, No. 1, 2013.
- [9] TY Kim & JH Ha, "The Mediating Effect of a Growth-Oriented Failure Mindse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Employment Burnou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30, No. 11, p. 184, 2023.
- [10] SM kwon, "The Relation between Desire and Happiness from the Viewpoi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Philosophy*, Vol. 36, pp.121-152, 2010.
- [11] Spielberg, C. D., "Anxiety: Anxiety-Current Trends and Theory", *Academic Press*, pp. 23-49, 1972.
- [12] EM Park & JS Park,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on Career Decision : Double Mediation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and System Justification", *Locality and Globality*, Vol. 47, No. 3, p. 63, 2023.
- [13] BJ Kim, "A Study of Life Events Influenced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KJSPP*, Vol. 25, No. 1, pp. 115-135, 2011.
- [14] S Watts & P Stenner, "Practicing Q Methodology Research," *Communication Books*, 2014, pp.35-37.
- [15] S Watts, P Stenner, *Ibid.*, pp. 100-101.
- [16] GH Shin & SS Ohk,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on Volunteer Activit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9, pp. 187-188, 2014.
- [17] S Watts & P Stenner, *Ibid.*, pp. 346-347.